

수협은행 2010년까지 해양금융자산 2조원으로 육성 해양투자금융부 신설 1년만에 약정 8천억 등 순항

수협은행은 오는 2010년까지 해양금융부문을 자산 2조원, 순이익 550억원의 사업부문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비전을 수립했다. 항만건설의 민간투자자로서 해운선사에 대한 신조선, 중고선의 선박금융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박투자회사 지원, 정부 SOC사업 투자, 부동산사업 분야에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수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월 해양투자 금융부를 발족해 해양기획팀, 선박금융팀, 투자금융팀 등으로 해양금융 전문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양투자 금융부를 신설한 이후 최근까지 약 8000억원의 약정고를 올려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이뤄냈다. 해양금융 강국으로 가는 첫걸음을 뚫 셈이다.

수협은행이 해양금융 전문은행을 표방한 것은 생존을 위한 틈새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협은행은 그동안 '수산정책금융만 취급하는 협동조합' 이미지가 강했다. 어업인 지원이라는 기존 업무로는 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특히 대형화, 겸업화로 치닫는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선 해양과 수산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금융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했다. 또 해양산업의 지속적 개발과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도 맞아 떨어졌다.

해운부문 세계 8위, 조선부문 세계1위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해양금융 산업은 척박

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다. 해양 조선업이 국가경제 기간산업임에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금융기관이 없었다는 얘기가.

특히 해양수산 분야 국내총생산(GDP)가운데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물류 항만개발, 해양자원개발 등의 사업다각화가 절실하게 요구됐고 해양금융 발전은 필요충분조건이 돼 버렸다.

장병구 수협은행장은 “바다는 무한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보고며 금융 분야에서도 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투자와 선박금융은 물론 장기적으로 해양자원개발에도 금융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 행장은 특히 “우리나라도 바다자원을 이용한 신물질을 개발하기 위한 해양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설립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 해양금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은행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해양금융 분야는 선박금융, 항만개발, 투자금융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선박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선박펀드를 취급하는 선박금융은 오는 2010년까지 해양부문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7%까지 끌어올릴 계획. 우선 선박금융에 은행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운선사에 대한 선박 확보자금의 직접여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자본출자, '오션 2I' 등 정부 해양정책 종합금융 서비스 등이 선박금융의 핵심 업무다.